

산골(散骨)에 관한 질의응답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승인(2017년 12월 4일)

㉓ 요즘 자연장, 특히 수목장(樹木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목장은 해도 되는지요?

자연장(수목장 포함)은 거룩한 장소인 묘지 공간에 마련된 수목,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을 함에 담아 묻고 추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고인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나 표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부활 신앙에 반대되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6항 참조〕 그러나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행위는 산골로 여겨 교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목장은 명시적으로 신앙교리성 훈령이 금지하는 것, 곧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을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 또는 다른 어떤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

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수목장은 사람이 죽은 뒤 화장한 분골을 지정된 수목의 밑이나 뿌리 주위에 묻는 것이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매장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목장이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관점에서 범신론이나 자연주의 사상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목장의 경우 묘지 안에서 매장이 이루어지고, 나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표시되어 추모의 상징적 장소로서 규정된다면, 그리고 육신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교 신앙 교리가 분명히 인식되고 고백된다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교 신앙 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장이 아닌 산골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목장은 그리스도교 장례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㉔ 만일 유골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그 유골의 봉안 기간이 지났다면, 그때에는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산골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도 산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적당한 안치소에 이름을 표기하고 매장하여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이라 해도 그 유골은 어디까지나 성스럽고 소중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침에 따르면, 봉안 기간이 지난 유골은 정부가 정한 봉안당 관련 법률을 따르되, 공원묘지 등지에 별도로 ‘공동 안치소’를 마련하여 매장 형태로 영구히 봉안해야 합니다. 이때 이름을 표기하여 죽은 이를 추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교회의 2017년 춘계 정기 총회 결정 사항 참조)

사제수품 50주년 축하드립니다

3월29일(목) 오전 10시
성유축성미사 후 명동대성당에서
사제수품 50주년
축하식이 있습니다.



함세웅(아우구스티노) 신부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루카 18,13)

신부님은 1968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연희동성당, 응암동성당, 주교관, 한강성당, 구의동성당, 홍보국장, 평화신문(현, 가톨릭평화신문) 사장,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장위동성당, 상도동성당, 제기동성당, 청구성당에서 사목하시다가 2012년 원로사목자가 되셨습니다.